

시론



진호림

(주)리얼프로텍 대표이사

유년 시절, 면사무소 쓰레기장에서 주운 고무장갑은 추억이 담긴 소중한 놀이도구였다. 어른들로부터 야단을 맞으면서도 그것이 출산을 제한하기 위한 콘돔이었다는 사실을 한참 성장한 이후에 알았다.

“뉘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 가정에서 5남매를 두었으니, 그 시절 부모님은 겁이 없었는지 아니면 배짱이 두둑하셨던 듯하다.

197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53명. 1960년엔 6명으로 더 높았다. 당시 개발도상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올해는 0.68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어쩌면 더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많은 자녀를 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아이를 갖기를 권했다.

머스크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한국을 꼭

출산의 두려움을 떨쳐내려면

집이 거론하면서 한국 사회의 심각한 소득격차, 특히 가난을 주목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소득 계층별 큰 차이를 보인다. 저소득층의 출산율은 고소득층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크며,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사실상 결정되는 사회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기업과 자치단체들이 앞을 다투어 출산 장려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이 ‘돈 뿌리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집값이 비싸서” “임금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는 비교된다.

우리보다 열악한 나라의 국민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온 국민이 배고프던 60~70년대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잘사는 지름길이라 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낳았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집단적 저항으로 해석된다.

과거 미국 사회에서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로부터 출산을 강요받던 흑인 여자 노예들의 선택과도 닮아 있다. 그들은 자식에게 억압과 고통의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목화 뿌리를 씹으며 피임을 선택했다. 대물림을 끊어 내려는 절박함은 오늘날 청년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가치는 더 이상 최우선 삶의 의미가 아니다. 미국 여론조사기

관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족을 1위로 꼽지 않은 나라는 단 세 곳, 그중 하나가 한국이다. 대만은 사회를 끊었고, 스페인은 건강을 택했다.

한국 사람은 물질적 풍요 즉,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이는 물질적 풍요에 대한 압박감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보다는 개인의 삶과 경제적 자립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출산 기피 현상을 청년들의 태업이나 파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저출산이 ‘파업’이라면 그 안에 아직은 희망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년들이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이 저항이 사보타주로 발전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 내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출산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물려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의미와 희망을 되찾아줄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성공의 기회와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높이고,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삶의 질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출산과 가정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을 아예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어도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기 어렵다면 차라리 인구 3천만이나 2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社說

유럽 등 도시재생에서 배워야 한다는 ‘대자보 광주’

광주와 산하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인 광주정책연구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21세기 유럽의 지속 가능한 글로컬 도시재생이 주목받았다. 특히 선진국들이 공황을 없애고 도로를 줄여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민선8기 광주시가 이른바 ‘대·자·보 광주’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는 만큼 시민들과 소통, 공감대 확장을 위해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큰 때문이다. 주제 강연에 나선 김정주 런던시티대학교 교수는 민간이 참여한 재생을 통해 버려진 건물을 활용해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고 다양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영국 런던의 구글캠퍼스, 프랑스의 스테이션, 스웨덴 스톡홀름의 노르캬하우스를 소개하기도 했다.

향구적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과 맞물려 대자보 시책도 시민과의 상생 협력이 성패의 관건이다. 농촌보다 도시 인구가 많아졌고 불평등, 자동차 중심,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새로운 문제들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며,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광주시

는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 1차 회의를 열고 첫 발을 뗐다. 광주시는 실증공간 조성, 대자보 도시공론화, 시민 스스로 기획·실현, 사람 위주의 교통 흐름 등 실증·소통·참여에 연결을 더한 ‘시민공감 정책 실행 계획 3+1’을 본격화한다. 시민속의 및 공동 이행 협약식에선 도시철도 2호선 구간 도로다이어트, 광천권역 특별 교통대책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브라질 쿠리치바·콜롬비아 메데인 등 해외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지역에 맞는 창의적인 벤치마킹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목된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쉐어링을 진행하고, 도시철도 2호선 푸른길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대전환을 모색한다. 대자보 시책이 교통체계 개선을 넘어 도시재생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글로컬 포럼에서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성이 강조됐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매일 정기편 무안국제공항 홍보 캠페인 성과내야

무안국제공항이 매일 정기편을 운항하고 있다.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전남도는 무안군, 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동절기 노선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해당 노선은 일본과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9개국 18개다. 특히 일본과 대만의 도시 3곳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공급했던 기준과 달리 전석 개인별 발권이 가능해 편의성이 향상됐다. 전남도는 전북도와 14개 시·군, 광주시 5개 구청에 전단을 발송하고 협력도 요청했다.

하루라도 빨리 서남권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무안공항 활성화가 시급하다. 2019년 88만명이 이용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이다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맞았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다. 10월말 기준으로 32만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 상승했다. 전남도가 올해 목표로 잡은 50만명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현실공히 호남의 관문으로 기능할 것인바 기대도 무리라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항공사를 방문해 정기편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제주항공 등 국내외 3개사와 정기편 운항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국제선의 성공적 운항과 항공기 운항 방식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앞으로도 항공사의 유가적 협력을 통해 정기편을 더욱 다변화할 계획이다. 광주 근공항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민간공항과 함께 통합 이전을 위해 관련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제주 등 국내노선 확대를 위한 기폭제로 작용하도록 지역사회의 여론을 결집해야 한다.

전남도는 서부권, 동부권, 광주권 등 권역별로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며 광주와 전북 주민들까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돌입한 상황이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잠시 정체를 겪었을 뿐이다.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즈음이다.

자치칼럼



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송원대학교 교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는 뜻이다. 행정이나 사회복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누구나 유념해야 할 일이다. 현재 광주시는 97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동이 중요한 이유는 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최전선에 있는 소통 창구이고 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주민과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 지원은 동 주민센터가 해야 할 일 중 핵심이다.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마을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사회복지관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의 고립 가구나 취약계층을 발굴해 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 단위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모든 동에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

주민자치, 주민 결의로

하다 보니, 원거리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은 사회복지관 이용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관이 동 단위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언을 실천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다. 마을로 복지관을 더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즉 수요가 있는 동에 과감하게 거점 공간을 만들어 사회복지관의 분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실무자들이 출퇴근을 거점 공간인 분원으로 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이 주민 결의로 다가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던 중에 사회복지관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찾아오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직접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가 주민과 호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다. 행정이든 복지관이든 인력충원이 되지 않으면 공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어렵다.

최근 광주시는 지난 7월 그동안 호봉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공공생활가정에 올해부터 호봉제를 도입했다. 지역아동센터는 5개 자치구와 최종 검토를 거쳐 적용시기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모든 사회복지 시설종사자는 호봉제 적용을 받게 된다.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실무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한편 현장에 일이 너무 많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는 증가하고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고립 가구 등 돌봐야 하는 이웃이 많기 때문이다. 동 단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민 결의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점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광주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정 인력 권고안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나 부산시와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물론 자원은 한정돼 있고, 경제, 복지, 행정 등 모두 돌봐야 하는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용어 중 ‘중용(中庸)’이 있다. 중용은 치우치지 않고 항상 가운데를 지키며, 균형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용은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매사에 균형을 이루며 사는 삶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 광주시는 중용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서비스이든, 사회복지서비스든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이것이 주민자치의 기본이다.

기고



이달승

장성소방서장

오랫동안 지속됐던 더위가 급세 달아난 듯, 쌀쌀해진 날씨와 붉게 물들어가는 낙엽을 보면 계절의 변화가 실감된다.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그동안 묵혀뒀던 난방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때다.

다가오는 겨울,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장성소방서는 군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기 취급이 늘어나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조심 강조의 달’ 현수막 설치, 소방안전 문화 캠페인, 소방안전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더욱이 화재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다 쉽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보일러, 전기장판, 콘센트 등을 사용하기 전 안전 점검을 해주고 이 밖에 쓰레기 소각 금지, 소방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신경 써준다던가 다가오는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화재는 방심과 부주의로 일어난다. 나무부터 시작하는 안전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더 많이 하면 우리 모두에게 전파돼 모두가 안전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기원한다.

\* 독자투고물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좋은 열매

필요치 않은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 버리고

수많은 꽃이 피어도  
남을 꽃은 살피고 르네

갈날에  
베인 상처가  
열매에 비쳐 있네

(시조집 '겨울 화성성에 올라', 문학공민, 2024)



지성찬

[시의 눈]

한 농부가 장차 과일을 저울질하며 가지치기를 합니다. 꽃처럼 실한 배꽃만 남기고 ‘사정없이’ 솎아내지요. 꽃 열매가 열릴 쯤엔 적과(摘果)를 합니다. 실과가 사람 입맛에 맞춰 끊어지고 당도 또한 높아지기를 바라서이겠지요. 인위적 적자생존, 그러니 까튼실한 꽃과 열매에 양분을 집적하게끔 부추겨 이윤을 높이라는 게지요. 태풍의 시련 뒤에 배야흐로 가을, 배 향기가 이랑에 번집니다. 1294년 파르체의 단테 알리기에리가 ‘새로운 인생’에서 배아트리체를 잃은 오랜 뒤 언급한바, 사람의 지난 일엔 양분간은 잊혀지기 마련이며 다시 새로운 용기를 솟게 만든다했더군요. 오늘 아침, 난 배구공같이 둥근 배를 깎습니다. 이 배로 말하자면 가지치기여! 어린 꽃에게 휘두른 그 가위날을 피해 예까지 왔지요. 결국 인간의 일을 위해 살아남은, 아니 살려진 셈이군요. 한데, 난 위약적 허무에 엄습됩니다. 그 살려진 가지와 꽃, 열매의 혼을 위해 복수라도 하듯 날을 곤두세우고 싶습니다. 비록 인들만큼 이빨이지만 예라, 한입 크게 베어먹습니다. 우여곡절, 이 식탁에 온 ‘좋은 열매’에 어쨌든 내 진인함이라니... 하던, 갈수록 양양하고 굵어지는 이 탐욕증은 대체 무슨 망발일까요? 지성찬 시인은 총남 총주에서나,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전국시조백일장 당선, 1980년 ‘시조문학’ 추천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조집 ‘서울의 강’(1988), ‘인생의 GPS’2(이시)등을 냈습니다. 그는 정연한 그릇에서 사유 또한 반듯하게 담아내어 시조의 위의를 높이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부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